순천시, 정원수 공판장 통합명칭 '순천만 가든마켓' 확정

연향뜰 일원 국내 최초 정원자재 및 정원수 유통단지

생산·유통시스템 구축·판로 다양화·유통체계 확립

순천시가 연향뜰 일원에 건립중인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의 통합명칭을 '순천만 가든마켓'으로 확정하였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선진 정원자재판매 유통단지와 정원수 유통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정원수 공판장을 아우르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만 가든마켓'은 국내 최초의 정원자재 및 정원수 유통단지로써 전남지역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순천의 정원수 자원을 활용한 정원수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원수 판로를 다양화하고 정원수 유통체계를 확립해 정원관련 자재의 유통·판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립된다.

순천시는 지난해 10월 정원문화산업을 잘 표현하고 순천시를 대표·상징하는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정원자재판매장 및 정원수공판장' 통합명칭 공모를 진행한 결과, 총 257건이 접수되어 최종 5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작 '순천 가든 마켓'은 순천에서 정원 관련 자재·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게라는 의미로, 창의성, 상징성, 대중성, 지역성, 발음용이성을 심사해 최고점을 받았으나, 인근의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잡월드,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더불어 지역 명칭을 '순천'보다는 '순천만'으로 지역표시 문구 통일을 위해 최종적으로 '순천만 가든마켓'으로 확정하였다.

한편, 순천만 가든마켓은 정원관련 식물·자재 온오프라인 판매, 정원수 마케팅, 정원 전문가 마켓, 정원수 온라인 전자경매 운영 등의 기능을 갖춰,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기업 모집

오는 29일까지 신청

광양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업혁신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1년 광양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제품의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 기술로 연결하여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최소비용 및 시간으로 제품이 생산 운영되는 지능형 미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3단계(구축, 고도화 1, 고도화 2)로 구분되어 진행되며, 구축 비용의 80~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농업인 실용교육 실시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총 10회 걸쳐 2000여명 대상

고흥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농업인 2,00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올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평년과 달리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22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네이버밴드에 가입하면 교재를 우편으로 받아 교육에 참석할 수 있다.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과정은 △토양(2월 1일) △식량작물(2월 2일) △축산(2월 3일) △마늘(2월 4일) △농업전망(2월 5일) △농촌자원(2월 8일) △농업경영(2월 9일) △고추(2월 15일) △유자(2월 16일) △아열대과수(2월 17일)로 10일간 매 13:30부터 시작하여 3시간 동안 진행한다.

매년 실시하던 읍면순회교육을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미참석 농업인의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각 읍면에 영농종합기술 교재 1,400부를 2월 중으로 배부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보성몰'에서 똑 소리나게 쇼핑하자

설맞이 특별 할인…다음 달 10일까지, 다양한 할인이벤트

보성군은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1월11일부터 2월10일까지(30일간) 온라인 직거래장터 '보성몰'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설맞이 특별 할인 기간에는 기본 10%에서 최대 20% 이상 저렴하게 보성 농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신규회원 5,000원 포인트 적립, 상품 후기 작성 시 1,000원 포인트 적립 제공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천연염색 마스크(1인 1매)도 증정한다.

'보성몰'에는 110개 업체, 700여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12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해 청정자연에서 키운 녹차, 키위, 벌교꼬막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명절에 알맞은 선물세트 45종도 구비돼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녹차는 바이러스 예방효과가 있어 호흡기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설 명절 선물로 적극 추천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

보성=김덕순 기자

여수시, 별관증축 여론조사…객관성·공정성 '필요'

시민들, 양청사 체제보다 통합청사 체제 더 선호

지난 11일 여수시 갑 지역 국회의원이 통합청사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역사회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론조사 질문지에는 "여수시는 문수청사를 폐쇄하고 학동 1청사로 청사통합을 추진 중"이라고 명시해 설문 결과를 왜곡할 수 있으며, 실제 시의 계획과도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수청사는 2018년 정밀안전진단 용역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 이상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어, 통합청사와 관계없이 올해 3월 이후 이전해야 한다.

여수시는 흩어진 8개 청사를 한데 모아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별관증축을 추진 중이며, 기존 제2청사로 활용되고 있는 여서청사에 대해서도 존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문 내용과 전혀 다르다. 특히 문수청사 자리에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청년커뮤니티센터를 유치해 여문지구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갑 지역 국회의원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 양청사 체제 45.7%, 학동 통합청사는 40.5%, 제3지역 통합청사 9.2%로 나타났다.

사실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학동 통합청사와 제3지역 통합청사 의견을 더하면 49.7%로 여수시민들은 양청사 체제보다 통합청사 체제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앞서 여러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2018년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통합청사 건립이 찬성 40.5%, 반대 28.5%이고, 지난해 여수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수시민 67%가 찬성 의견을 보였고, 여서·문수·미평 지역에서도 58.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여수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사항으로 민원업무 처리 시 개선되어야 할 점 1순위로 35%의 시민들이 청사 분산 등으로 담당부서 찾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민원불편 사례 조사결과 약 3만3천여 건의 복합민원과 부서 위치 혼동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수차례 별관증축에 대해 협의했으나, 본청사 별관 증축사업과 여서·문수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수청사 매입 예산을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어 "논의의 주체인 여수시와 시의회는 본청사 별관 증축에 대한 찬성과 반대만을 놓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로 시민의 의견을 물어 청사문제의 마침표를 찍고 여수의 미래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